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연구*

원정은** · 정혜원***

초 록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진로성숙도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시간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의 초등패널 데이터 중 4차년도(중1)~8차년도(고2)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시기의 진로성숙도 변화양상에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탐색하고, 시간의존변수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잠재성장모형의 검증을 통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중학교 시기에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감소하는 반면,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살펴본 결과, 문화체험활동의 참여는 중1, 중3,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동시효과와 중2, 고1, 고2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지연효과가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의 참여는 중1 시점에 동아리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수록 중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동시효과를 보였으며, 중3 시점 동아리활동 참여가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지연효과를 보였다.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은 모든 시점에서 유의한 동시효과를 보였으며, 봉사활동은 중3 시점의 참여가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지연효과를, 중2 시점과 중3 시점의 진로활동 참여는 중3,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지연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진로성숙도, 창의적 체험활동,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 동시효과, 지연효과

* 이 논문은 제4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won91kr@naver.com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I.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직업 등 진로 선택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생계유지 수단 그 이상이며,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자아실현의 기초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숙경, 이현림, 2006).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성장·발달함에 따라 진로 선택에 기초가 되는 진로의식과 진로능력 또한 성장·발달함을 가정하고 있다. 이때 개인이 당면하는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로서 진로성숙도를 강조하고 있다(김양분 외, 2014; 손찬희, 2016).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능력, 흥미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최숙경, 이현림, 2006). 학생은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한 상태로, 대학 입학 시기에 점수에 맞추어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등 내부적 갈등상태에서 성급히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로활동이 포함됨에 따라 진로교육이 강화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과거의 교과 지식과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제시한 인간상에 따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으로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오해섭, 조영아, 2013). 2015년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동법 제4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함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확산하고자 교육개혁 5대 과제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현재 동아리 활동 중점형, 예술·체육 중점형, 학생선택 프로그램 중점형 등 여러 형태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이경, 민수빈, 2015; 장현진, 이지연, 윤수린, 이윤진, 2014).

위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한 진로 선택을 위해 교육과정에서의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한편, 교육과정 내 체험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태 및 프로그램 분석 연구,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및 운영 방안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1; 박옥식, 지은경, 2010; 송병국, 박정배, 배정수, 2012; 정미경, 이윤정, 최경

은, 2012; 정소민, 김영순, 강현민, 2012; 조대훈, 이수미, 2012; 최유현 외, 2011).

진로성숙도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탐색한 선행연구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박완성, 김기수, 2012; 이현미, 정제영, 2017; 정윤경, 2005; 홍은숙, 이화숙,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특정시점에 국한하여 탐색하였다.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변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예측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또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 학교급에 따라 활동마다의 그 중요도 및 진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같을 수 없으며, 예컨대 학년 전환기에는 진학 또는 취업과 관련된 진로활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더욱이 고등학교 시기에는 대학 입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진로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의 다른 영역 활동 중요도가 낮을 수 있기에 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임효진 외, 2016).

한편 인간의 전 생애 중에서도 청소년기는 진로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나 청소년기는 Super(1976)의 진로발달 단계 중 탐색기(15-24세)에 해당하는 단계로, 개인이 미래를 고민하는 시기이자 개인의 특성을 직업 세계와 연결지어 진로를 깨닫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시기로서 진로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봉환 외, 2006; 이정민, 정혜원, 2016).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시기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다른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의 학생들은 신체·생리적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게 되면서 사고의 범위도 확장되어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맞게 된다(Roser, Eccles & Sameroff, 2000). 따라서 신체적·생리적·심리적으로 급변하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의 연구는 이때 학생들의 역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성숙도의 발달양상과 이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관련변인들의 단편적인 상관에 의한 해석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진로성숙도의 발달양상 탐색 및 이에 대한 효과 탐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청소년 시기의 진로성숙도 발달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참여한 창의적 체험활동

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시기의 시간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각 시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동시 및 지연시점에서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진로성숙도

Super(1957)는 진로발달이 성인 초기 동안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 지속하여 이루어진다는 생애진로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때 Super는 생애진로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성숙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며 진로성숙을 개인의 각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직업적인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Crites(1961)는 진로성숙도를 같은 발달 단계의 개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직업 준비 정도로 보았다. Hoyt(1976)는 직업세계와 자아에 대해 알며, 이 모두에 대한 준비도를 진로성숙이라 정의하였다.

진로성숙도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희영(2003)은 진로성숙에 대하여 교육적 혹은 직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 혹은 이에 대한 의사결정 준비의 정도라 하였다. 이상희(2005)는 자아의 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스스로 진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 혹은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의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 정주영(2015)은 진로성숙도를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 숙고의 과정을 통해 목표를 설정한 후 실천하는 능력이라 보았으며, 자기와 일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로를 선택, 준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성숙도 변화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유미와 권윤정(2015)의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의 고1부터 고3까지 시기를 분석하였으

며,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증가한 결과를 보고하였었다. 같은 패널 자료를 이용한 Yon과 동료들의 연구(2013)에서는 초4에서 고3까지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약간 감소하며,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패널 자료를 이용한 박효희와 성태제(2008)의 연구에서는 중2에서 고1 시기를 거치면서 진로성숙도가 높아졌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 시기의 진로성숙도가 감소하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여(이주리, 2009; 임효진 외, 2016; 정윤경, 이지수, 안현선, 2017) 연구대상의 측정시점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변화 양상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를 살펴본 가운데 중2에서 고1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효희와 성태제(2008)의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진로성숙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김이선(200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오은경, 2003).

2.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은 권고적이어서 실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학급, 학년,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김영임, 2014). 종합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이 학교교육 안에 갇혀 있다는 과거 인식을 벗어나서 학교라는 한정된 교육공간을 뛰어넘어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지적·신체적 체험활동을 총체적으로 경험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정소민 외, 2012).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체계

영역	성격	활동
자율 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적응활동 • 자치활동 • 행사활동 • 창의적특색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 학술활동 • 스포츠활동 • 청소년단체활동 등 • 문화예술활동 • 실습노작활동
봉사 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교내봉사활동 • 캠페인활동 • 지역사회봉사활동 • 자연환경보호활동 등
진로 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개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 자기이해활동 • 진로계획활동 • 진로정보탐색활동 • 진로체험활동 등

Ballantyne & Packer(1996)과 Dewey(1925)는 실제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체험 활동 학습이 학생들에게 노동 및 여가를 경험하게 하고, 학교 및 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함과 동시에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사훈, 이광우, 2014, 재인용). 해외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향점이 유사한 활동으로서 교과 관련 활동(Co-curricular Activities), 교과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창의적활동·체험활동·봉사활동(Creativity Action Service, CAS) 등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전 학년에 걸쳐 국가 교육과정에 담아 시수까지 직접적으로 제시한 국가는 많지 않다(백경선, 이영아, 이동엽, 김사훈, 김대석, 2013).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까지 지식 전달 위주 수업으로 이루어져 왔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수업 시수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 개인의 미래를 탐색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국가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사훈, 이광우, 2014).

한편 초창기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교급 및 학년군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적절성에 문제가 있고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보고되었다(이승미 외, 2013; 서울대학교, 2014).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창의

적 체험활동의 각 4개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활동별로 각 학교급에서 무엇을 교육의 중점으로 삼아야 할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 및 학년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4개 영역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각 학교급 및 학년에 따라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성숙도

학생 개인의 진로성숙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질과 능력,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학생 자신이 독립적으로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 점차 그 체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었다.

다양한 체험활동 가운데 진로 체험활동이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확인되어 왔다(박미정, 2009). 그러나 그 외 체험활동, 가령 예술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등이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직접적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Mitchell & Krumboltz, 1996)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 정의의 기반이 되는 자아와 세계관의 일반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즉, 체험활동은 진로발달의 요소인 자아의 이해와 직업 세계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와 세계관 사고의 변화가 진로발달을 이끌어 준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청소년 체험활동은 그 경험이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관점을 습득시켜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소희, 2007; 김영철, 2005; 박광민, 1999).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내적 가치 추구가 활동의 활력을 촉진한다고 하였고,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혜연, 황매향과 김영빈(2007)의 연구에서도 자율성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의 내적 직업 가치 추구 수준이 높았다. 즉, 세계관 일반화의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체험활동은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내적 가치를 직업세계에서 실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보건대,

이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자기 이해와 세계관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세부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중 문화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생회 활동 경험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박미란, 이지연, 2010)가 있는 반면, 임현정과 김난옥(2011)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참여한 집단의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간 다소 혼재된 연구결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와 이효인의 연구(2015)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정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활동, 모험개척활동(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극기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환경보존활동, 청소년참여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등에 있어서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아리활동의 참여가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태도와 부분적으로 진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으며(김영임, 2014; 문승태, 박몽진, 2003; 이효성, 2001).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업동아리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인 결정확신성에서 동아리활동을 한 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나, 다른 하위요인인 준비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양영석, 김명숙, 2015). 주현준과 이쌍철(2014)의 연구에서는 동아리활동 참여년수를 활용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지속할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봉사활동과 진로성숙도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경험과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완성, 김기수, 2012; 정윤경, 2005; 홍은숙, 이화숙, 2015; 이현미, 정제영, 2017). 고등학생이 봉사활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오대일, 2006).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진로 관련 체험활동이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확인된 사

실이기 때문이다(박경자, 2009; 박미정, 2009; 손찬희, 2016).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프로그램 효과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참여 여부에 따라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최병옥, 2014). 김경식과 이현철(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검사 등 학교 진로교육이 중·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2009)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강연, 적성검사 및 상담 등의 진로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김혜영(2003)과 이자형(2014) 등의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교사의 진로 지도가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진로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다소 분분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살펴보고, 진로성숙도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영역의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시간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시간 흐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발달형태를 탐색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일시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더불어 이전 시점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지연효과까지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 초등패널 중 2013년 4차년도(중1)에서 2017년 8차년도(고2)까지 5년 동안의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정책 및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2010년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108개 초등학교, 총 5,059명을 대상으로 층화2단계집락추출방식에 따라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2017년 8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여 조사에 참여한 3,180명 학생 중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2,86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4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의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2,564명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의 결측률을 확인한 결과, 측정시점(4차년도~8차년도)에 따라 0.4%~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PSS 24.0을 활용하여 Little의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검증을 통하여 완전 무작위 결측인 것을 확인하였다($\chi^2=31.035$, $df=26$, $p=.227$, Little & Rubin, 1987). Graham(2009)에 의하면 결측이 5% 이하일 경우 listwise 방식을 허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5시점(4차년도~8차년도)동안 진로성숙도 설문 문항에 한번도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 117명 및 불성실한 응답자 14명을 listwise 방식을 적용하여 제거하여 2,43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생각, 느낌, 행동 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는 Super(1970)의 진로 가치관검사(Work Value Inventory: WVI), Crites(1973)가 개발한 진로의식 성숙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포함된 진로지도 문항 등 국내·외 검사를 참조하여 서울교육중단연구에서 재구성하였다(박현정 외, 2011).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교육중단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써 8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측정값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각 시점에서 진로성숙도의 Cronbach's α 는 .927(4차), .919(5차), .930(6차), .907(7차), .916(8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 별로 진로성숙도 8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창의적 체험활동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활동의 경우,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에 속해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10), 본 연구에서는 자율활동의 정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율활동 내 세부영역 중 행사활동 영역에 현장체험학습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여(곽지은, 2013), 수집된 설문문항 중 자율활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문화체험활동 문항을 자율활동 측정 문항으로 활용하였다. 문화체험활동을 묻는 문항은 ‘문학작품 읽기’, ‘영화나 비디오 보기’, ‘연극, 뮤지컬 관람’, ‘미술관, 박물관 견학’, ‘고전음악회, 오페라 공연 관람’, ‘대중가수 콘서트 공연 관람’, ‘전통음악, 민속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8문항의 각 체험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 프로그램 일환으로 단체 체험활동의 경험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안함=1’, ‘1주에 1~2번=5’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험 활동이 빈번하게 전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율활동으로 간주한 문화체험활동 문항은 8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동아리활동 측정문항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문화예술’, ‘학습’, ‘스포츠’, ‘취미오락’, ‘종교’, ‘사회봉사’, ‘청소년단체’, ‘기타’ 동아리 참여 여부를 묻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임현정과 김난옥(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참여 여부를 ‘참여함(=1)’, ‘참여하지않음(=0)’으로 변환, 참여 여부의 빈도를 합산하였다.

봉사활동 측정문항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교내 봉사활동과 교외 봉사활동을 묻는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외 봉사활동은 다시 개인이 했는가, 단체로서 참여했는가를 묻고 있다. 동아리활동과 마찬가지로 교내, 교외(개인), 교외(단체) 총 세 문항의 참여경험 여부를 ‘있다(=1)’, ‘없다(=0)’로 변환하여 참여경험 여부의 빈도를 합산하였다.

진로활동은 임효진 외 연구(2016)와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참고하여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학교 진로전담교사와 상담’, ‘부모님과 대화’, ‘타인(친인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조언’,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등)’ 5문항의 경험 여부를 ‘있다(=1)’, ‘없다(=0)’로 변환하여 그 빈도를 합산하였다.

표 2
측정변인

구분	변인	응답 및 내용	변인값	신뢰도	
중속 변인	진로 성숙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927(4차)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전공 혹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919(5차)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930(6차)	
		나의 진로(전공 혹은 직업)를 스스로 결정한다	2=그렇지 않다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3=보통이다	.907(7차)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4=그렇다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5=매우 그렇다	.916(8차)	
독립 변인	문화 체험 활동 (자율 활동)	문학작품을 읽는다(예: 시, 소설)		.835(4차)	
		영화나 비디오를 본다		.808(5차)	
		연극, 뮤지컬을 관람한다	1=전혀 안함		
		미술관, 박물관에 간다	2=1년에 1~2번	.797(6차)	
		고전음악회, 오페라공연에 간다	3=1학기에 1~2번	.728(7차)	
		대중 가수 콘서트에 간다	4=1달에 1~2번		
	전통음악, 민속공연에 간다	5=1주에 1~2번	.685(8차)		
	동아리 활동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활동			
		학습 관련 동아리활동			
		스포츠 관련 동아리활동			
		취미오락 관련 동아리활동	1=참여함	-	
		종교 관련 동아리활동	0=참여하지 않음		
	봉사 활동	사회봉사 관련 동아리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기타					
진로 활동	교내 봉사활동		1=있다	-	
	교외 봉사활동(개인)		0=없다		
	교외 봉사활동(단체)				
통계 변인	성별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학교 진로전담교사와 상담			
		부모님과의 대화	1=있다	-	
		타인(친인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조언	0=없다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등) 실시					
통계 변인	성별	남 / 여	1=남자 0=여자	-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변화 패턴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성장함수 모형 간 비교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성장모형 패턴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 단계로 진로성숙도의 반복 측정치들만을 이용한 모형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변화 성장모형, 자유모수 성장모형, 비선형변화 성장모형(이차함수 모형), 분할함수 성장모형 중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과 Mplus 8.0(Muthén & Muthén, 1998-2017)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 처치 또는 사건의 개입 이후 관심변인에 변화궤적이 다른 형태를 갖는 자료에 적합하다(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응답한 자료로,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를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으로서, 시간에 따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의 창의적 체험활동(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현황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4차년도(중1 시점)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차년도(중2 시점) 3.91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문화체험활동은 대부분 평균의 값을 보였으나 연극·뮤지컬관람, 고전음악회·오페라공연 관람, 전통음악·민속공연은 참여

빈도가 거의 낮았으며, 빈도분석 결과 0~1의 값에 분포되어 높은 척도 값을 보였다. 동아리활동은 종교동아리 참여가 가장 적었으며, 봉사활동은 대부분 교내 봉사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활동은 진로상담교사와의 상담이 다른 진로활동 변인에 비해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의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현황

변인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성별	남	<i>N</i> (%)	/				1,058(43.5%)	
	여	<i>N</i> (%)					976(40.1%)	
	무응답	<i>N</i> (%)					399(16.4%)	
진로성숙		<i>M</i> (<i>SD</i>)	4.05(.748)	3.91(.727)	3.94(.729)	4.02(.670)	3.97(.664)	
		<i>S / K</i>	-.44/-.37	-.26/-.19	-.27/-.21	-.35/-.04	-.29/.03	
문화 체험 활동	문학작품	<i>M</i> (<i>SD</i>)	3.12(1.22)	2.19(1.18)	3.07(1.23)	3.33(1.41)	3.12(1.22)	
		<i>S / K</i>	-2.22/1.23	-1.84/7.16	-2.15/1.05	-1.58/2.55	-2.23/1.22	
영화·비디오		<i>M</i> (<i>SD</i>)	4.10(1.12)	3.30(1.54)	4.05(1.16)	4.07(1.16)	3.58(1.52)	
		<i>S / K</i>	-3.06/5.02	-3.22/3.45	-3.28/5.00	-2.94/5.65	-3.10/5.23	
연극·뮤지컬		<i>M</i> (<i>SD</i>)	1.45(.97)	1.48(.98)	1.38(.92)	1.43(.98)	1.37(.82)	
		<i>S / K</i>	-3.47/9.01	-4.49/9.77	-4.78/8.87	-4.79/8.02	-3.84/10.05	
미술관·박물관		<i>M</i> (<i>SD</i>)	3.31(1.00)	3.40(1.02)	3.30(1.00)	3.36(1.00)	3.29(0.98)	
		<i>S / K</i>	-4.14/4.35	-4.94/3.78	-5.16/3.99	-5.50/3.87	-4.31/4.48	
고전음악·화공연		<i>M</i> (<i>SD</i>)	1.12(.54)	1.07(.53)	1.00(.53)	1.07(.54)	1.09(.66)	
		<i>S / K</i>	-4.52/11.91	-5.93/12.82	-5.82/15.95	-6.99/13.88	-4.67/11.50	
콘서트		<i>M</i> (<i>SD</i>)	2.01(.78)	3.05(1.13)	3.93(1.62)	2.98(.85)	2.00(.83)	
		<i>S / K</i>	-4.91/10.83	-6.18/5.91	-5.95/6.04	-8.02/8.80	-4.95/9.58	
전통음악, 민속공연		<i>M</i> (<i>SD</i>)	1.07(.72)	1.05(.43)	0.99(.50)	1.02(.76)	1.05(.66)	
		<i>S / K</i>	-4.81/12.99	-5.97/13.83	-5.93/13.98	-7.35/11.56	-4.86/13.81	
스포츠경기관람		<i>M</i> (<i>SD</i>)	3.20(1.12)	3.24(1.87)	3.05(1.43)	3.07(1.43)	3.21(1.13)	
		<i>S / K</i>	-3.83/4.01	-4.41/5.45	-5.14/4.03	-6.05/4.42	-3.78/4.77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참여	<i>N</i>	679	795	750	759	766
		미참여	<i>N</i>	968	1199	1178	1274	1347
	학습	참여	<i>N</i>	352	398	425	941	1094
		미참여	<i>N</i>	1187	1561	1451	1099	1020
	스포츠	참여	<i>N</i>	656	687	683	503	359
		미참여	<i>N</i>	987	1307	1239	1506	1700

변인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취미	참여	N	574	543	495	398	271
	미참여		1063	1434	1404	1583	1779
종교	참여	N	80	62	46	42	34
	미참여		1444	1872	1785	1889	1985
사회봉사	참여	N	152	146	141	276	324
	미참여		1385	1796	1707	1688	1740
청소년단체	참여	N	242	208	193	222	216
	미참여		1307	1732	1648	1715	1830
기타	참여	N	333	285	325	363	326
	미참여		1232	1661	1542	1601	1727
교내	참여	N	1496	1838	1699	1778	1869
	미참여		882	570	676	637	496
봉사 활동	교외(개인)	N	929	1538	420	1571	1652
	미참여		1375	818	1844	809	687
교외(단체)	참여	N	617	484	750	497	417
	미참여		1594	1751	1178	1762	1830
담임상담	참여	N	1117	1260	1633	1774	1913
	미참여		1217	1159	784	650	492
진로교사 상담	참여	N	527	538	725	531	487
	미참여		1839	1880	1691	1893	1919
진로 활동	부모님과 대화	N	2139	2062	2126	2131	2109
	미참여		272	356	287	291	291
타인조언	참여	N	1115	980	1010	1013	1029
	미참여		1293	1428	1399	1405	1378
진로검사	참여	N	1674	1770	1849	2012	1845
	미참여		735	645	564	406	558

2. 진로성숙도 변화패턴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진로성숙도 변화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으로 적합도와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까지 이르는 5시점의 측정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 4와 같이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변화 성장모형, 자유모수 성장모형, 비선형변화 성

장모형(이차함수 모형),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 성장모형은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없음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선형변화 성장모형은 진로성숙도가 일차함수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며, 비선형변화 성장모형(이차함수 모형)은 진로성숙도가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고 변화율이 달라지는 것을 가정한다. 자유모수 성장모형은 첫 번째 요인 적재치를 0으로 고정하고, 마지막 하나의 요인 적재치를 1로 고정한 후, 0과 1 사이의 나머지 3개 시점에 해당하는 요인 적재치를 자유롭게 추정한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시점을 분할하며(이정민, 정혜원, 2017),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이전과 이후에 따라 초기값과 기울기가 다르게 추정됨을 가정한다.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진로성숙도 변화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성숙도 변화의 무조건모형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무변화 성장모형	443.170 ^{***}	13	.898	.922	.117(.107-.126)	.149
선형변화 성장모형	280.788 ^{***}	10	.936	.936	.105(.095-.116)	.125
자유모수 성장모형	159.228 ^{***}	7	.964	.949	.095(.082-.108)	.108
비선형변화 성장모형	146.848 ^{***}	6	.967	.944	.098(.085-.112)	.092
분할함수 성장모형	121.282^{***}	6	.973	.955	.089(.075-.103)	.079

*** $p < .001$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할함수 성장모형에서 진로성숙도의 초기치 평균은 4.008 ($p < .001$)이고, 중학교 1학년 시점 이후 3학년까지 1기 변화율은 $-.036$ ($p < .001$), 이후 고등학교 2학년 까지 2기 변화율은 $.028$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때의 초기 진로성숙도는 4.008이었으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 변화율인 $.036$ 만큼 선형 감소하다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028$ 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초기치에 대한 분산이 $.294$

($p < .001$)로 진로성숙도 초기치에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변화율에 대한 분산 추정치는 .035($p < .001$)로 중학교시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감소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었으며, 2기 변화율의 분산 추정치가 .056($p < .001$)으로 고등학교 시기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정도 또한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진로성숙도 변화계적은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조건모형을 통해 이러한 개인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초기치와 1기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1기 변화율이 더욱 감소함을 의미하며, 진로성숙도 초기치가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는 더욱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초기치와 2기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초기치가 낮을수록 2기 변화율이 더욱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초기치가 낮을수록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가 더욱 빠르게 향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초기값이 높은 상태에서 중학교 시기는 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며, 초기값이 이미 높은 상태는 고등학교 시기에서 향상폭이 작게 나타나나 낮은 초기값에서는 향상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종단연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표 5
진로성숙도 분할함수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형	평균	분산	상관계수	
초기치	4.008***	.294***	초기치 & 1기 변화율	-.175**
1기 변화율	-.036***	.035***	초기치 & 2기 변화율	-.333***
2기 변화율	.028***	.056***	1기 변화율 & 2기 변화율	-.328***

** $p < .01$, *** $p < .001$

진로성숙도 변화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의 창의적 체험활동(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시간의존적변인으로 투입한 최종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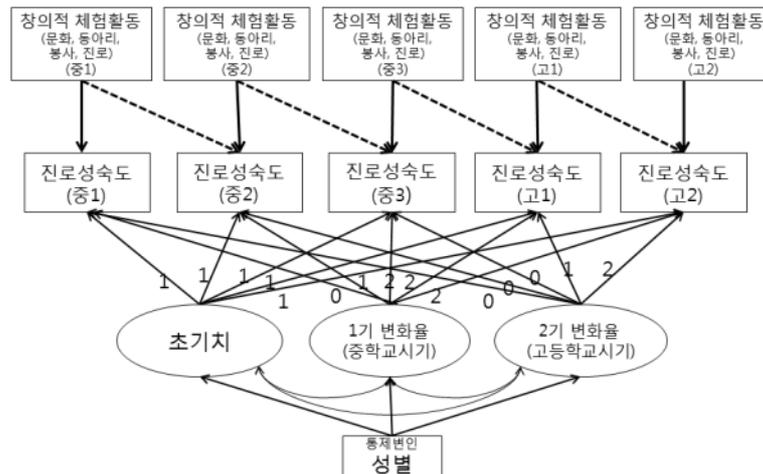


그림 1. 최종 연구모형

3. 진로성숙도 변화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향

1) 문화체험활동(자율활동)의 동시 및 지연효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문화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한 결과, 중1 시점의 문화체험활동이 활발할수록 중1 시점의 진로성숙도($\beta=.115$, $p<.001$)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3 시점($\beta=.050$, $p<.01$)과 고1 시점($\beta=.053$, $p<.01$)에서 같은 양상을 보여 동일시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6 참조). 한편, 이전 시점의 문화체험활동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1 시점과 중3, 고1 시점의 문화체험활동이 활발할수록 각각 이후 시점인 중2($\beta=.057$, $p<.01$)와 고1($\beta=.030$, $p<.10$), 고2($\beta=.046$, $p<.05$) 시점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 성별을 통제하였을 경우, 진로성숙도 초기치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015, $p=.624$). 반면,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28, p<.01$). 즉, 중학교 시기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성장률은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64, p=.069$).

표 6
연구모형의 추정경로계수

경로	β	s.e	
문화체험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1)	.115***	.020	
문화체험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2)	-.003	.016	
문화체험활동(중3) → 진로성숙도(중3)	.050**	.018	동시효과
문화체험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1)	.053**	.017	
문화체험활동(고2) → 진로성숙도(고2)	.004	.019	
문화체험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2)	.057**	.017	
문화체험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3)	.010	.018	지연효과
문화체험활동(중3) → 진로성숙도(고1)	.030*	.017	
문화체험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2)	.046*	.021	
성별 → 진로성숙도 초기치	.015	.031	
성별 →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중학교시기)	-.128**	.046	
성별 →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고등학교시기)	.064	.035	

+ $p<.10$, * $p<.05$, ** $p<.01$, *** $p<.001$

2) 동아리활동의 동시 및 지연효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한 결과, 중1 시점에 동아리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수록 중1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064, p<.10$). 이전 시점의 동아리활동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3 시점의 동아리활동이 활발할수록 이후 고1($\beta=.070, p<.05$) 시점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동아리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 성별을 통

제하였을 경우, 진로성숙도 초기치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 = .040, p = .438$),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26, p = .112$). 반면,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117, p < .05$). 즉, 고등학교 시기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성장률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연구모형의 추정경로계수

경로	β	s.e	
동아리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1)	.064 ⁺	.033	
동아리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2)	.030	.027	
동아리활동(중3) → 진로성숙도(중3)	.039	.031	동시효과
동아리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1)	.024	.028	
동아리활동(고2) → 진로성숙도(고2)	.048	.031	
동아리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2)	-.020	.029	
동아리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3)	.003	.030	지연효과
동아리활동(중3) → 진로성숙도(고1)	.070 [*]	.028	
동아리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2)	-.018	.035	
성별 → 진로성숙도 초기치	.040	.052	
성별 →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중학교시기)	-.126	.079	
성별 →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고등학교시기)	.117 [*]	.05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봉사활동의 동시 및 지연효과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였다. 중1부터 고2 시기까지 모든 시점에서 봉사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동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전 시점의 봉사활동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3 시점의 봉사활동이 활발할수록 이후 시점인 고1($\beta = .047, p < .001$) 시점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봉사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 성별을 통제

하였을 경우, 진로성숙도 초기치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19$, $p=.594$). 반면,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134$, $p<.05$), 이는 곧 중학교 시기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성장률은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35$, $p=.388$).

표 8

연구모형의 추정경로계수

경로	β	s.e	
봉사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1)	.127***	.023	
봉사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2)	.049 [°]	.020	
봉사활동(중3) → 진로성숙도(중3)	.034 [°]	.015	동시효과
봉사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1)	.044 [°]	.021	
봉사활동(고2) → 진로성숙도(고2)	.083***	.022	
봉사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2)	-.001	.021	
봉사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3)	.024	.021	지연효과
봉사활동(중3) → 진로성숙도(고1)	.047***	.012	
봉사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2)	.009	.024	
성별 → 진로성숙도 초기치	.019	.035	
성별 →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중학교시기)	-.134 [°]	.052	
성별 →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고등학교시기)	.035	.040	

* $p<.05$, ** $p<.01$, *** $p<.001$

4) 진로활동의 동시 및 지연효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한 결과, 중1부터 고2 시기까지 모든 시점에서 진로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동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전 시점의 진로활동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2 시점과 중3 시점의 진로활동이 활발할수록 각각의 이후 시점인 중3($\beta=.063$, $p<.01$) 시점과 고1($\beta=.043$, $p<.05$) 시점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진로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 성별을 통제하였을 경우, 진로성숙도 초기치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48$, $p=.111$). 반면,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095$, $p<.05$), 이는 곧 중학교 시기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성장률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18$ $p=.607$).

표 9

연구모형의 추정경로계수

경로	β	s.e	
진로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1)	.130***	.019	
진로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2)	.091***	.017	
진로활동(중3) → 진로성숙도(중3)	.079***	.018	동시효과
진로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1)	.118***	.017	
진로활동(고2) → 진로성숙도(고2)	.100***	.019	
진로활동(중1) → 진로성숙도(중2)	.011	.017	
진로활동(중2) → 진로성숙도(중3)	.063**	.019	지연효과
진로활동(중3) → 진로성숙도(고1)	.043*	.017	
진로활동(고1) → 진로성숙도(고2)	.030	.021	
성별 → 진로성숙도 초기치	.048	.030	
성별 → 진로성숙도 1기 변화율(중학교시기)	-.095*	.044	
성별 → 진로성숙도 2기 변화율(고등학교시기)	.018	.036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간에 걸쳐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소개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진로발달에 있어서 체험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적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 전환기를 기점으로 하여 1기 시점인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다가 2기 시점인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영역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밝혀내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이후 시기(1기)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고등학교 시기(2기)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생들은 흔히 중2병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듯이 본격적인 사춘기가 이어지는 시기로, 급격한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자신과 직업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임효진 외, 2016). 반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시기나 문과·이과 등의 계열을 선택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와 같은 진로 전환기에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로성숙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박효희, 성태제, 2008; 임효진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시기별 진로발달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결과들은 자료와 측정시기를 적용한 성장모형에 따라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 변화 형태에 대한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다(박효희, 성태제, 2008; 손찬희, 2016; 임효진, 김정수, 2017).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지역 및 시점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임효진, 김정수, 2017), 진로성숙도 변화의 선형모형을 가정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발달양상을 모형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평균점수는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감소, 중학교 3학년 이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다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다소 감소하여 이 추세가 이어질지 그 여부가 확실치 않기에 학교급간 및 각 시점의 진로성숙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자료 축적과 더불어 다양한 모형들과의 비교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임효진 외, 2016).

둘째,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시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영역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험활동은 중1, 중3, 고1 시점에서 진로성숙도에 단기 효과인 동시효과뿐만 아니라 시간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지연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박미란, 이지연, 2010; 최창욱 외, 2015). 교육부(2018)에서는 「2018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예술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며, 대학·예술단체·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을 펼치며,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중심 예술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폭 넓은 지원 활동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동아리활동 참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중3 시점의 동아리활동이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학교 3학년 때의 활동 참여가 고등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교급 전환시기에서 동아리활동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동아리활동의 문항은 수집된 패널 자료 특성상 각 동아리활동의 종류별 참여 여부를 측정하는 데 한정되었기에 동아리활동 참여 시간 등을 살펴본 선행연구(주현준, 이쌍철, 2014; 신은경, 윤경, 김진강, 2016)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측정 문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과 진로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중1 시기에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에 참여할수록 중1 시점의 진로성숙도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5년간에 걸쳐 모두 같은 양상을 보여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이 동일시점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3 시점의 봉사활동 참여는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중2 시점과 중3 시점의 진로활동의 참여는 각각 중3 시점과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타성, 헌신성, 배려 등의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봉사활동은 그 경험 자체가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관점을 습득시켜주어(김소희, 2007; 김영철, 2005; 박광민, 1999) Krumboltz의 진로 사회학습이론의 세계관 일반화 측면에서 볼 때,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내적 가치를 직업세계에서 실현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선혜연 외, 2007).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이 봉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

과를 지지하며(박완성, 김기수, 2012; 이현미, 정제영, 2017; 정윤경, 2005; 홍은숙, 이화숙, 2015), 상담과 진로검사 등 진로 경험을 할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김경식, 이현철, 2012; 이한나 외, 2009). 특히 이 연구에서 중3 시점의 봉사활동 참여가 고1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확인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이 시기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윤나, 손진희, 최윤진, 2008)를 살펴볼 때, 봉사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는 청소년의 진로·진학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진로 관련 활동이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논리적·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주지하여 향후 학교에서는 각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기별 효과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2010)에서 제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탐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활동으로 문화체험활동으로 선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율활동 영역 안에는 학생자치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존재한다. 자율활동의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율활동 영역의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변인 구성에 있어, 대규모 패널 자료의 특성상 한정적인 문항으로 변인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을 제외한 하위영역의 경우, 각 하위영역별 활동 참여 여부를 합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과 관련한 만족도, 지속적 참여 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초 통계 결과, 동아리활동 변인은 높은 침도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 1개~2개의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활동의 참여 여부를 단순 합산하기보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성숙도 간 면밀한 연구를 위하여 체험활동을 시행하고 난 후의 만족도, 체험활동의 참여 기간, 개인의 체험활동 수행 정도 등의 질적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살펴봄에 따라 개인, 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변인에 의한 효과 탐색은 모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급 변화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종단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진로성숙도와 창의적 체험활동 네 영역 각각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 개발에 편향되었고,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한 결과는 특정 시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 변화에 따른 청소년기 학생의 급격한 신체적·생리적·심리적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성숙도에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적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과거시점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함께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각각 다른 시점에서 각기 상이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완하고 강화할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고, 진로성숙도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효과를 탐색함으로써 현재 교육정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청소년 진로성숙 향상의 교육과정 내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체험활동의 교육적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지은 (2013).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중학교 진로교육 매뉴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8). **2018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민주시민교육과47(2018. 5. 10.).
- 김경식, 이현철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 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doi:10.25152/ser.2012.60.4.1079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사훈, 이광우 (2014).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 **한국교원교육연구**, 31(2), 373-395. doi:10.24211/tjkte.2014.31.2.373
- 김소희 (2007). **수련활동 체험이 청소년의 생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분, 남궁지영, 김난옥, 김정민, 최보미, 박경호, 송승원, 임현정, 이영주 (2014). **한국 교육중단연구2013(I):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연구보고 RR 2014-2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0(2), 285-304.
- 김영임 (2014).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 변화**.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철 (200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미, 권윤정 (2015). 개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층 모형의 적용. **인간발달연구**, 22(2), 93-111. doi: 10.15284/kjhd.2015.22.2.93
- 김윤나, 손진희, 최윤진 (2008). 청소년활동의 종단적 변화특성 및 관련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9(4), 139-167.

- 김이경, 민수빈 (2015).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 **한국교육
교육연구**, 32(2), 181-203. doi:10.24211/tjkte.2015.32.2.181
- 김이선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접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혜영 (2003).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순천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승태, 박몽진 (2003). 공업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4), 177-192.
- 박경자 (2009).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광민 (199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란, 이지연 (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
이해**, 31(1), 65-88.
- 박미정 (2009).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랩넨트 지도자
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옥식, 지은경 (2010). 서울시립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분석. **청소년학연구**, 17(9),
1-25.
- 박완성, 김기수 (2012). 고교생의 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
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4(1), 23-40. doi:10.17927/tkjems.2012.24.1.23
- 박효희, 성태제 (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박현정, 하여진, 박민호, 오현철, 이준호, 이진실, 박수억 (2011). **서울교육중단연구
2010 사용자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백경신, 이영아, 이동엽, 김사훈, 김대석 (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1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합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187-217. doi:10.30916/KER A.56.1.187
- 서울대학교 (2014).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세종: 교육부.
- 선헤연, 황매향, 김영빈 (2007). 진로상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상담학연구**, 8(2), 549-563.
- 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doi:10.14816/sky.2017.28.3.57
- 손찬희 (2016). 중·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와 변화요인에 대한 종단적 고찰. **제2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57-71.
- 송병국, 박정배, 배정수 (2012). 평생학습기관에서의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방안.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1), 207-238.
- 신은경, 윤경, 김진강 (2016). 동아리활동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1(1), 133-154.
- 양영석, 김명숙 (2015).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창업동아리활동이 창업의지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233-240. doi:10.16972/apjbve.10.5.201510.233
- 오대일 (2006). **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은경 (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유형,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해섭, 조영아 (2013). 서울시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자원 현황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1), 47-55.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미,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김진숙, 김사훈 (2013).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자형 (2014).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진로 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정민, 정혜원 (2016).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발달양상의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1), 29-53. doi:10.21509/KJYS.2016.11.23.11.29
- 이정민, 정혜원 (2017).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변화궤적과 방과후학교 참여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 연구. **교육학연구**, 55(1), 185-209.
- 이주리 (2009).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30(2), 43-55.
-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129-148.
- 이현미, 정제영 (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기교육 종단연구(GEPS)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doi:10.21509/KJYS.2017.01.24.2.117
- 이효성 (2001). **남녀공학 공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관련 환경변인 탐색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이론 연구 및 적용**. 서울: 학지사.
- 임현정, 김난옥 (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 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청소년의 진로경험 및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의 종단변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상담학연구**, 17(5), 289-306. doi:10.15703/kjc.17.5.201610.289
- 임효진, 김정수 (2017). 진로성숙도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포부와 독서활동의 동시지연 효과. **초등교육연구**, 30(1), 147-168.
- 장현진, 이지연, 윤수린, 이윤진 (201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기본연구 2014-2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미경, 이윤정, 최경은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녹색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1), 289-308.
- 정소민, 김영순, 강현민 (2012). 청소년체험활동자원을 활용한 교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교육문화연구**, 18(2), 165-195. doi:10.24159/joec.2012.18.2.165
- 정윤경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9-305.
- 정윤경, 이지수, 안현선 (2017).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와 학업참여

- 및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진로교육연구**, 30(3), 1-24. doi:10.32341/JCER.2017.09.30.3.1
- 정주영 (2015). 특성화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진로성숙도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효과검증. **직업교육연구**, 34(3), 135-150.
- 조대훈, 이수미 (2012).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연구학교의 운영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1(1), 109-122.
- 주현준, 이쌍철 (2014).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분석. **교육종합연구**, 12(2), 157-180.
- 최병욱 (2014). 지역사회와 연계한 중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 관련 요인과 정서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3(4), 693-705. doi:10.15812/ter.53.4.201412.693
- 최숙경, 이현림 (2006). 진로상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 결정 유형, 진로결정 장애 및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1), 85-101.
- 최유현, 손다미, 임운진, 이옥복, 조재주, 이은상 (2011). 과학관 이동전시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4(3), 123-142.
-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이호인 (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 15-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은숙, 이화숙 (2015).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37-153. doi:10.5392/JKCA.2015.15.11.137
- Ballantyne, R. R., & Packer, J. M. (1996). Teaching and learning in environmental education: Developing environmental conception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7, 25-32. doi:10.1080.00958964.1996.9941455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59. doi:10.1037/h0048519
- Crites, J. O.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asearch handbook*. Monterey, CA: CTB/McGraw-Hill.
- Dewey, J. (1925).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 Graham, J. W. (2009). Missing data analysis: Making it work in the real worl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549-576. doi:10.1146/annurev.psych.58.110405.085530

- Hoyt, K. B. (1976).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Little, R. J. A., & Rubin, D. B. (1987).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New York: Wiley.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96).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Roser, R. W., Eccles, J. S., & Sameroff, A. J. (2000). School as a contex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5), 443-471. doi:10.1086/499650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doi:10.1037/0003-066X.55.1.68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Row.
- Super, D. E. (1970). *Work values inventory*. Boston, MA: Houghton.
- Super, D. E. (1976). *Career education and the meanings of work (Monographs on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 Yon, K. J., Choi, W., & Goh, M. (2013). Career maturity growth curve and sex-role stereotype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3), 203-222. doi:10.1177/0894845312445515

ABSTRACT

A study of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Won, Jungeun* · Chung, Hyew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ing trajectory of career maturity and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club activities, volunteering, and career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Data was harvested from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from 7th to 11th grade) and was utiliz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fitted well to the dataset. Adolescents' career maturity appeared to decrease during middle school years, however, their career maturity appeared to increase during high school years. Second, the contemporaneous effects of cultural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were positive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7th, 9th, and 10th grades. In addition, the significant lagged effects of cultural activities in the 7th, 9th, and 10th grades on career maturity in the 8th, 10th, and 11th grades were found. The contemporaneous effect of club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was positively significant in 7th grade. The significant lagged effect of club activities in the 9th grade on career maturity in the 10th grade was found. Moreover, the significant contemporaneous effects of volunteering and career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were found during the time of analysis. The lagged effects of volunteering in the 9th grade on career maturity in the 10th grade were significant. The lagged effects of career activities in both the 8th and 9th grades on career maturity in 9th and 10th grades were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areer maturity,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ing,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투고일: 2018. 9. 2, 심사일: 2018. 11. 9, 심사완료일: 2018. 11. 18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